

# 민주, 日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尹정부 침묵으로 용인”

“尹 정부만 침묵...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2차대전 전범국가, 청정 바다와의 전쟁”  
“IAEA 검증 절차, 日과 짜고 치는 고스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한다”며 “국민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과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하라 표현하고, 11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행태에 국민들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끝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에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가 청정한 바다와의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검증 절차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일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안점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찬성하는 듯한 태도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



양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고작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나. 윤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

다.

박광운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을 두고 “후쿠시마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여야가 모쳐

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며 보고서 발표 전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용일기자

##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 막판 고심... “정해진 발표 시점 없어”

최고위원회의서 결론 못 내... “여러 명 추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후보들 중 새 혁신위원장을 뽑기 위해 지도부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

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질의에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혁신위원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 발표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직후 진행되는 의원총회 전에 인선 작업을 매듭지

어 뒤야 잡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한 수준에서 얘기·보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업계 근무 의혹에 대한 발언도 오갔다고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근무했던 정황 나왔고,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가상자산 관련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전후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당 대표 간 정책 대화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측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은) 김 대표가 요청한 조건을 그대로 받았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이슬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의 일정이 포함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12일 개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승인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그동안 하반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중간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제1차 정례회로 옮겨 전년도 한 해 전반의 행정에 대한 점검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14일 기획조정실, 북구시설관리공단 등 북구청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1일까지 진행된다.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7월 4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문제의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특목히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 이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북구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기 위해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前 서울시의회 3선 의원 출신 좋은 정책연구소장 김용석 교수를 초청하여 ▲행정사무감사 핵심 착안 사항 및 실천 사례 ▲행정사무감사 전 준비사항 및 자료 요구 전략 ▲감사 실무 및 감사 결과 처리 방법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